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1. 다음 가상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스승님,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p>  <p>1</p>	<p>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선, 즉 행복이래네.</p>  <p>2</p>
<p>그렇다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3</p>	<p>실천적 지혜로 증용을 파악하여 품성적 덕을 발휘해야 한다네.</p>  <p>4</p>

- ①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증용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 ② 타고난 품성적 덕을 기르기 위해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 ③ 이성이 아닌 감각적 경험을 통해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 ④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여 유덕한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
- ⑤ 앎을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내므로 참된 앎을 탐구해야 한다.

2. (가), (나)에 제시된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가)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친하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자식만을 친애하지 않는다. 노인은 부양되며 아픈 사람들과 홀로된 사람들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p>
<p>(나) 초승달 모양의 이 섬의 성인 남녀들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을 자고 남은 시간에는 여가를 즐긴다. 각 구역의 중심에는 모든 상품이 풍족한 시장이 있고 자유롭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p>

- ① (가):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고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이다.
- ② (가):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륜이 구현된 사회이다.
- ③ (나): 빈곤과 낭비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다.
- ④ (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이다.
- ⑤ (가), (나): 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하지 않은 질서 있는 사회이다.

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의 성(性)이 선(善)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고 연꽃이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성이 선을 좋아하니 선을 실천하고 의(義)를 쌓으면 활기차고 당당해지지만, 악(惡)을 행하고 마음을 저버리면 침울하고 답답해진다. 그러므로 덕(德)은 곧 마음을 행하는 것이며, 몸소 행하지 않는다면 덕이 있을 수 없다.

- ① 인간의 성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인가?
- ② 인간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지니는가?
- ③ 인간의 마음에 인의예지는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가?
- ④ 인간의 성은 지속적인 선의 실천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 ⑤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4.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두 사람이 두 국가를 이루었다. 신을 멸시함에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국가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까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국가를 만들었다. 신에 대한 지식은 이성이 아닌 신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며,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보 기 >

ㄱ.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ㄴ. 인간을 포함해 선과 악은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ㄷ.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사랑이다.  
 ㄹ. 지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를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되 배는 채우게 하며, 그들의 뜻은 약하게 하되 빼는 강하게 한다. 언제나 백성들이 알고자 하는 것도 없도록 하고 [無知] 하고자 하는 것도 없도록 하여[無欲],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감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p>
(나)	<p>_____ ㉠ _____ 그러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p>

- ①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서 백성들을 인의(仁義)로 다스려라.
- ② 예(禮)를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능력에 맞게 관직을 맡겨라.
- ③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無爲)를 행하라.
- ④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규범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적용하라.
- ⑤ 백성의 일정한 생업[恒産] 보장을 위한 경제 제도를 완비하라.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완전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정과 마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을: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정치 기구이다.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명시적 인 동의와 함께 스스로 선택한 통치자에게 넘긴 것이다.

- ① 국가는 힘과 정복에 의하여 생성된 통치 조직인가?
- ②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는 기구인가?
- ③ 국가는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결사체인가?
- ④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낸 수단인가?
- ⑤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부터 형성된 자연적 산물인가?

7.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마음의 본체가 성(性)이며 성은 곧 이(理)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효의 이치가 없다.  
 을: 성은 곧 이(理)이다.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일[事]에서는 이치라고 부른다. 성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며, 오로지 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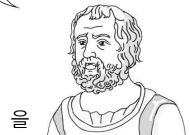
(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② B: 격물(格物)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가?
- ③ B: 마음의 본체는 이론적 학습을 거치지 않아도 실현되는가?
- ④ C: 양지(良知)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습득되는 것인가?
- ⑤ C: 지행(知行)의 선후 관계에서 행(行)이 지(知)보다 앞서는가?

8.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각자가 지각한 것이 각자에게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세속적 가치가 유덕한 삶의 필수 조건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인간과 사회를 학문 탐구의 주제로 삼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진리 판단의 근거를 감각적 경험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을: 이성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지만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얻은 진리는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 보기 >

- ㄱ. 갑: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참된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
- ㄴ. 갑: 인간과 사물은 필연적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ㄷ. 을: 자명한 원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서 도출된다.
- ㄹ. 갑, 을: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인(仁)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 [克己復禮]이다.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누구나 노력을 통해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		√	√		√	
사회 규범인 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		√		√
존비친소(尊卑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	√
자신을 미루어 타인을 대하는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그림은 한국 불교 사상이 가, 을의 사상 대화이다. 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수행의 바른 길은 경전의 교리를 이해하는 교(敎)와 참선 수행하는 관(觀)을 함께 닦는 것입니다.



가

수행의 바른 길은 마음의 혼란함을 없애는 정(定)과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혜(慧)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을

- ① 가: 바른 수행은 경전 공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② 을: 깨달은 후에도 나쁜 습관[習氣]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가: 을과 달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④ 을: 을과 달리 불성은 단박에 깨우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⑤ 가, 을: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12. 고대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의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다. 진정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ataraxia]이다.

을: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념에 이끌리지 않고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apatheia]에 도달해야 한다.

- ① 가: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가: 개인의 행복보다 공적인 삶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인격신의 명령에 따른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을: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 ⑤ 가, 을: 행복 실현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3. 고대 중국 사상이 가,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이를 쫓으면 다투고 빼앗게 되며 양보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사람의 성(性)은 악(惡)하고, 선한 측면은 인위[偽]의 결과이다.

을: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음에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보기>

- ㄱ. 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 ㄴ. 을: 타고난 인의를 확충하여 대인(大人)이 되어야 한다.
- ㄷ. 을: 인간은 예(禮)의 실천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ㄹ. 가, 을: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현대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을 회피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직면한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를 결단할 때, 참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을: 인간은 세계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로서 먼저 실존한 다음에 본질을 만들어 나간다. 자유롭도록 선고 받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때, 참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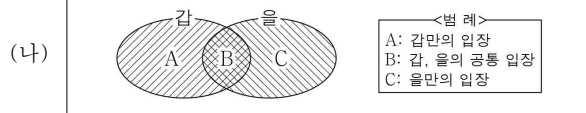
<보기>

- ㄱ. 가: 이성 발휘할 때 불안이 완전히 극복된다고 본다.
- ㄴ. 가: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면 절망에서 해방된다고 본다.
- ㄷ. 을: 인간의 본질을 정해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ㄹ. 가, 을: 실존의 회복을 위해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가: 도덕의 원리를 행복의 원리와 구분하는 것은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을: 도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강도, 지속성 등 일급 가지 기준으로 측정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



<보기>

- ㄱ. A: 도덕은 행복의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다.
- ㄴ.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
- ㄷ. B: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이다.
- ㄹ. C: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四聖諦]가 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 괴로움이 소멸함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해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道)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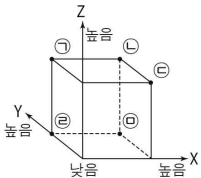
< 보기 >

- ㄱ.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 무명(無明)을 추구해야 한다.
- 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한다.
- ㄷ. 열반(涅槃)에 도달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수행해야 한다.
- ㄹ.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갑, 을은 사회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부의 증진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을: 정부는 시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의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X: 자유방임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정도
- Y: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정도
- Z: 경제 문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한 사람이다. 진보와 개선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며,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 ① 도덕은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② 도덕은 최종적인 목표로서 고정된 가치여야 한다.
- ③ 도덕 법칙은 의무로부터 비롯된 보편적 법칙이다.
- ④ 도덕적 행위는 유용성과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⑤ 도덕 이론의 목적은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가장 잘 맞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 안의 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참견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교환한다면 국가에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진정한 철학자가 되기 전에는 국가의 해악이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 ①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계층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 ② 통치자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
- ③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④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 철학과 정치권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 ⑤ 사회구성원은 절제의 덕을 갖추고 계층 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니,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으나 기에 가려진 뒤에는 불선(不善)이 된다.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니, 기가 발함이 절도에 맞지 않아 이(理)를 멀하면 악이 된다.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서 이가 타는 것이다. 사단은 전체를 아우른다는 면에서 칠정만 못하고 칠정은 순수한 면에서 사단만 못하다.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이와 기는 모두 발한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으며, ㉡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다르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을은 ㉢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으며, ㉣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사단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性]이라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